

2026 SEOUL DANCE CENTER RESIDENCY SHARING SESSION

2026
서울문화재단
서울예술가 토다



2026 서울무용센터 상반기 입주예술가 작업공유회

2026. 6. 12-14
서울무용창작센터

2026. 6. 12. (금)
박소현 <마디> 19:30

2026. 6. 13. (토)
임은정 <SHOOT> 14:00
곽유희 <IT'S TIME> 19:00

2026. 6. 14. (일)
윤예진 <풍문 분석> 16:00



서울문화재단 서울무용센터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SEOUL DANCE CENTER



서울무용센터는 무용 장르 특화 창작공간으로, 안정적인 창작 환경과 다양한 실험의 기회를 지원합니다. 예술가의 기획·창작 과정을 지원하고 예비 유통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창작 지평을 확대하고자 입주예술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업공유회는 2026년 서울무용센터 상반기 입주예술가 박소현, 임은정, 곽유하, 윤혜진 4인이 약 5개월 동안 진행한 리서치와 창작 결과를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서로 다른 시선과 움직임이 교차하는 4개의 작품 쇼케이스가 서울무용창작센터에서 펼쳐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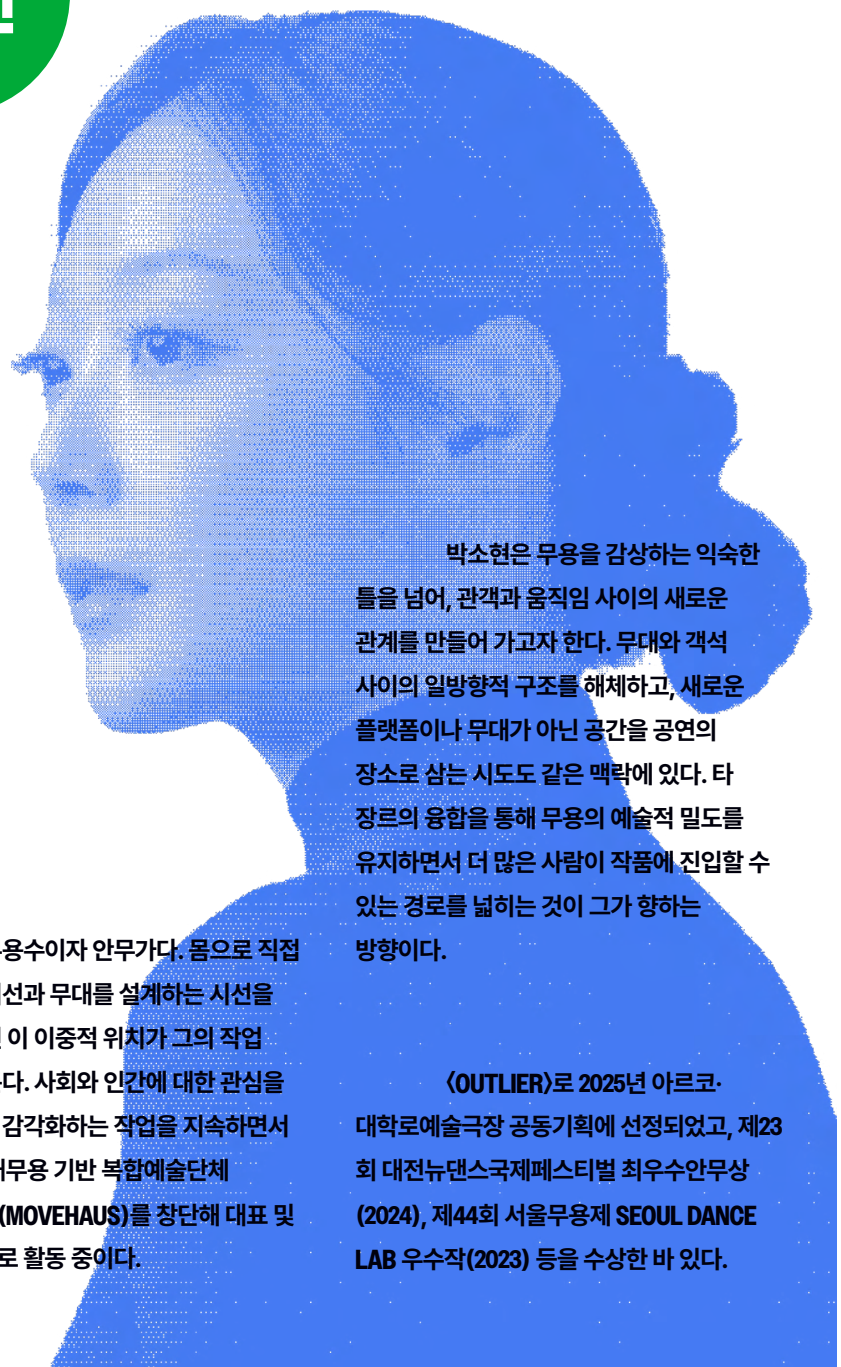
작업공유회를 계기로 각 작품이 앞으로 더 다양한 플랫폼에서 관객과 만나기를 기대하며, 입주예술가들의 탐구와 실험이 빚어낸 작업을 함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업공유회 프로그램 안내

2026. 6. 12. (금)
박소현 <마디>
19:30

2026. 6. 13. (토)
임은정 <SHOOT>
14:00
곽유희 <IT'S TIME>
19:00

2026. 6. 14. (일)
윤혜진 <풍문 분석>
16:00



박소현

박소현은 무용수이자 안무가다. 몸으로 직접 수행하는 시선과 무대를 설계하는 시선을 동시에 가진 이 이중적 위치가 그의 작업 방식을 만든다. 사회와 인간에 대한 관심을 움직임으로 감각화하는 작업을 지속하면서 2025년 현대무용 기반 복합예술단체 무브하우스(MOVEHAUS)를 창단해 대표 및 예술감독으로 활동 중이다.

박소현은 무용을 감상하는 익숙한 틀을 넘어, 관객과 움직임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무대와 객석 사이의 일방향적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플랫폼이나 무대가 아닌 공간을 공연의 장소로 삼는 시도도 같은 맥락에 있다. 타 장르의 융합을 통해 무용의 예술적 밀도를 유지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작품에 진입할 수 있는 경로를 넓히는 것이 그가 향하는 방향이다.

〈OUTLIER〉로 2025년 아르크·대학로예술극장 공동기획에 선정되었고, 제23회 대전뉴댄스국제페스티벌 최우수안무상(2024), 제44회 서울무용제 SEOUL DANCE LAB 우수작(2023) 등을 수상한 바 있다.

2026.6.12.(금) 19:30

안무·연출 박소현

리서치·출연 최진술, 천왕록, 박소현

무대디자인 조일경

음악 FEELIZE STUDIO 우영선

‘마디’는 여러 의미를 가진 단어다. 시간을 나누는 단위이고, 음악을 구성하는 단위이며, 신체에서 움직임이 발생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박소현은 이 중의성에서 출발해 시간과 몸 사이의 간극을 탐구한다. 몸은 어떻게 시간을 인식하고 느끼는가. 그 감각 속에서 어떤 움직임이 발생하는가.

시간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몸이 그것을 감각하는 방식은 전혀 다르다. 어떤 몸에게 시간은 끊임없이 쫓아오는 것이고, 어떤 몸에게는 메아리처럼 울리다 사라지는 것이다. <마디>는 그 서로 다른 감각들이 한 공간 안에서 공존하는 작업이다.

공연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1부에서 퍼포머 셋은 같은 공간 안에 있지만 서로를 향하지 않는다. 각자는 오로지 자신의 시간 안에 있고, 저마다의 마디로 움직인다. 관객은 자유롭게 이동하며 원하는 거리에서 그 몸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 2부에서 관객이 자리에 앉으면, 가까이서 바라보던 개별의 몸들이 하나의 공간 안에서 다시 펼쳐진다. 거리가 생기면서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무심히 지나간 것 같던 시간은 사라지지 않고, 몸 밖에 또 다른 감각과 흔적으로 남아 축적되어 있었다.

- 공연 시작과 동시에 객석 입장이 진행되며, 좌석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관람합니다.
- 편안한 복장 및 신발을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마, 하이힐 및 구두 착용 지양)

임은정

임은정은 안무가이자 퍼포머, 비디오 아티스트다. 무용에 기반을 두고 시작하되, 비디오와 오브제, 인스톨레이션을 끌어들이 주제의 선명도를 높인다.

그의 작업은 여성의 몸이 어떻게 보여지고 소비되며 희생을 강요받아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고향 아바이마을의 곳에서 발견한 여성 서사, 샤머니즘 설화 속 희생의 구조가 오늘날 여성의 현실과 겹친다는 인식이 그 출발점이었다. 임은정은 그 안에서 타자의 시선이 어떻게 권력으로 작동하는지를 탐구한다.

작가는 작품을 만드는 일이 안무를 '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이해한다. 몸은 그것이 놓인 조건에 따라 전혀 다른 것을 발생시킨다. 어떤 몸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그 몸이 어떠한 조건 속에 놓여 있느냐는 곧 작업의 내용이 된다. 그 환경 안에서 관객과 퍼포머 사이에 실시간으로 벌어지는 일들, 그 고유한 현장성이 그에게는 작품이다.

2026.6.13.(토) 14:00

연출·안무 임은정

퍼포머 임은정

텍스트 임은정, 지영서

드라마터그 윤자영

제목 <SHOOT(슛)>이 '찍다'와 '쏘다' 두 가지 의미를 품은 것처럼 이 작업은 묻는다. 보는 행위는 언제부터 권력이 되는가. 신체는 사회적으로 입혀진 다양한 기호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인 몸, 그 자체로서 존재할 수 있는가.

작업은 가슴이나 골반, 엉덩이와 같이 섹슈얼한 의미로 읽혀온 신체의 특정 부위를 전면으로 내세운다. 그러나 퍼포머의 관심은 그 부위에 씌워진 의미가 아니라 몸 자체의 물성에 있다. 반복과 공간적 제약의 스코어 안에서 움직임은 거듭되고, 신체는 점차 기호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려 한다. 그것이 완전히 가능한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섹슈얼한 기호로 소비되어 온 여성 신체가 전혀 다른 맥락으로 읽히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것이 이 작업이 노리는 전복이다.

그 전복은 퍼포머의 몸에서만 일어나지 않는다. 퍼포머는 천으로 사방이 둘러싸인 공간 안에서 움직이고, 관객은 천에 뚫린 구멍을 통해 그 안을 들여다본다. 구멍 앞에 서기 위해 걷기 시작한 순간, 그 몸은 이미 다른 이의 시선 안으로 들어간다. 보는 행위와 보이는 행위는 동시에 일어난다. '어떻게 보느냐'와 '어떻게 바라봐지느냐'는 우리 모두의 문제다. <SHOOT>은 이미지를 소비하는 자리가 아니라, 시선의 끝에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자리다.

- 공연 시작과 동시에 객석 입장이 진행되며, 좌석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며 관람합니다.
- 편안한 복장 및 신발을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마, 하이힐 및 구두 착용 지양)
- 공연 중 퍼포머의 상반신 노출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예매 시 유의 바랍니다.

곽유하

곽유하의 작업은 언어들 사이의 간극에서 시작된다. 어린 시절 여러 문화권을 오가며 성장한 까닭에 소통이란 그 사회만의 일상적 규칙과 코드를 아는 것에서 비롯됨을 몸으로 익혔다. 그 경험은 낯선 언어를 해독하고, 다시 자신의 언어로 옮기는 감각으로 이어졌다. 곽유하가 '번역'이라 부르는 이 과정이 지금 그의 작업 방식을 만드는 근간이다.

그의 작업 궤적은 매체의 확장 과정이기도 하다. 학부에서 연기를 전공하며 말의 힘을 익혔고, 석사에서 현대무용을 수련하며 신체의 언어를 습득했다. 여기에 밴드 기타리스트로서의 음악적 경험까지 더해져 그는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매체를 골라 메시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

곽유하는 현재 '과학'을 작업의 주요 소재로 삼고 있다. 과학은 세계를 설명하는 정밀한 언어인 동시에 많은 이들에게 쉽게 담혀 있는 언어이기도 하다. 그는 이 간극을 예술로 건너는 '디코딩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지금은 시간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 과학의 언어를 몸과 소리와 시각 언어로 재구성하는 이 작업은 난해한 개념을 감각적 경험으로 번역하는 시도다. <디코딩 1: 암흑에너지>(강동아트센터 소극장, 2022)는 2022 국제현대무용제 SPARK PLACE 선정작이며, <디코딩 2: 브레인스토밍>(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 2025)은 뇌 과학을 4년간 연구한 끝에 발표한 작업이다. 두 작품 모두 안무·작곡·출연을 직접 맡았다.

2026.6.13.(토) 19:00

안무·작·작곡 곽유하

출연 곽유하, 임정하

영상 임정은 LIMVERT

흔히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로,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믿는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이 견고한 믿음에 균열을 낸다. 블록우주론은 과거-현재-미래가 이미 동시에 존재하며 시간의 흐름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일 뿐이라고 본다. 시간출현론은 한 발 더 나아간다. 세계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시간이라는 것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며, 양자들의 상태와 관계, 상호작용의 변화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체인을 우리가 시간의 흐름으로 인식할 뿐이라는 것이다. 두 이론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같은 곳을 가리킨다. 우리가 '흐른다'고 느끼는 시간은 세계의 실재가 아닐 수 있다는 것.

곽유하가 시간이라는 주제를 붙드는 데에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다. 제한된 시간 안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 결과로만 증명되는 삶의 논리에 대한 저항감 속에서 그는 그 틀을 오히려 깊이 이해함으로써 다른 방식의 반항을 시도한다. 물리학 안에서 뜻밖의 근거를 발견한 것도 그 연장선에 있다. '흘러가는 시간'이라는 당연한 감각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을 수 있다.

곽유하는 이 질문을 혼자 간직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은 지식이라는 믿음 아래, 그는 물리학의 언어를 무대 위로 가져온다. <IT'S TIME>은 렉처 퍼포먼스다. 두 이론을 설명하는 언어 위로 춤과 음악과 영상이 겹친다. 곽유하는 과학의 언어를 해독하고, 그것을 무용과 음악으로 번역해 무대 위에 올린다.

- 편안한 신발을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힐 및 구두 착용 지양)

윤혜진

윤혜진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것에 주목한다. 종종 세계는 복잡하게 얽혀있다고 느껴왔으며, 그 얽힘이야말로 진실에 가깝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의 작업은 선명한 것들 속에 숨겨진 여러 겹의 이야기를 포착하고, 몸은 그 한가운데에서 이중을 품은 채 드러난다. 그에게 몸은 이것이면서 동시에 저것인 채, 뿌연게나마 세계를 드러내는 장치이다.

이 태도는 이번 작업의 형식으로도 이어진다.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소문인지 분명한 것들, '~카더라' 하는 말들이 어떤 이론적 명제보다 더 진실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는 거대한 담론보다 사스럽고 작은 에피소드들 쪽으로 귀를 기울인다. 각자의 몸에 새겨진 구체적인 경험들, 일상의 결에서 건져 올린 이야기들이 그의 작업 재료가 된다. 2025년부터는 창작 공동체 '2호점'을 이끌며 관객과 소소하고 사적인 만남을 이뤄내는 작업을 지향하고 있다.

2026.6.14.(일) 16:00

안무 윤혜진

리서치·출연 김소연, 이사랑, 윤혜진

‘한국 춤은 공력으로 추어야 한다.’ 누가 처음 한 말인지 모른다. 한국무용을 오랫동안 전공하고 익혀오며 언제부터인가 이런저런 말들이 차곡차곡 쌓여 삶의 태도가 되어갔다. 한국 춤은 구전으로 전해진다, 한국 춤은 반복할수록 깊어진다, 맞는 말인지 아닌지 불분명한 채로 이 말들은 어느새 그의 몸에 진실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작품 〈풍문 분석〉에는 소문인지 사실인지 모를 몸들이, 말들이 던져지고 흘러 다닌다. 이야기들은 읽히기도 하고, 들리기도 하고, 몸에 닿기도 한다. 그러는 사이 어느새 우리는 한국 춤이 아니라 풍문이라는 현상 한가운데 서 있다. 어쩌면 풍문의 한가운데에서 한국 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혹은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조우하게 될지도 모른다.

오늘은 오랫동안 몸에 붙어온 말들을 꺼내어 다시 읽어보고, 한번 볼어보고, 날려보는 자리다. 사실인 줄 알았던 것이 소문 같고, 소문인 줄 알았던 것이 사실 같다. 다큐멘터리인 듯 판타지인 듯 경계는 끝내 흔들릴 것이다. 〈풍문 분석〉은 그 흔들림을 즐기는 작업이다.

2026

서울무용센터 상반기 입주예술가 작업공유회

상반기 입주예술가 곽유하, 박소현, 윤혜진, 임은정

운영 삼성종합관리(김영민, 박기해, 정강민)

음향 이응석

조명 이준열

영상 황선명

사진 이현석

아카이빙 에디터 윤솔희

디자인 스몰자이언트

서울문화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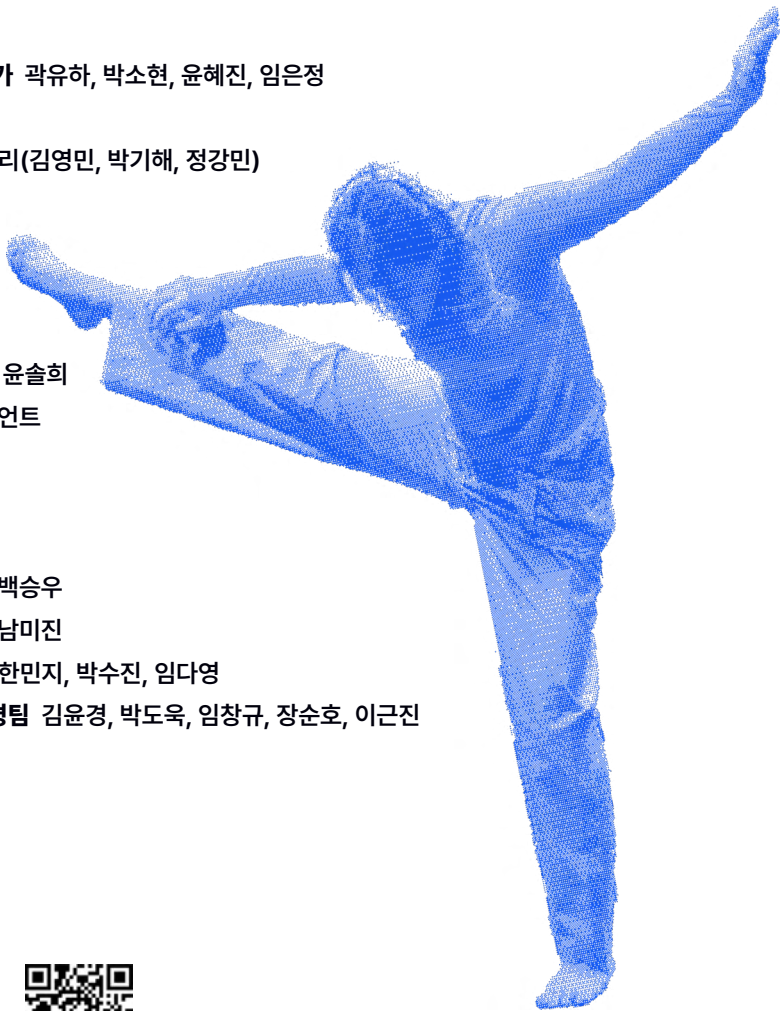
대표이사 송형종

예술지원본부장 백승우

예술지원협력관 남미진

공연예술지원팀 한민지, 박수진, 임다영

예술교육센터은평팀 김윤경, 박도옥, 임창규, 장순호, 이근진



프로그램북
PDF 다운로드



서울 예술인
지원하기

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 예술이 되다